

禪 보고 듣고 취해보자

■ 선문화 예술제 (4월 4~10일, 대구 대덕문화전당·대덕아트홀)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불교전통음악인 '동해소리와 춤' 시연 모습.

도자기가 아닌 하나의 정신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술행사에 흥을 돋워주는 소리와 춤이 빠진다면 맥이 빠질 것이다. 전 사회가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선문화에 다가서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면 종산 스님의 동해소리 공연은 눈과 귀를 함께 충족시켜 준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지 모르는 동해소리와 춤은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져 오는 불교 전통의 음악이다.

소리의 내용은 주로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의미를 지니며, 춤사위는 자연(自然)의 형상을 따서 만든 것이 특징이다. 춤은 오방무부터 시작해서 한풀이, 연꽃춤, 바라춤, 복춤, 회심곡, 극락무, 용선무 순으로 끝난다. 이번 공연에서 소리는 종산 스님이, 춤은 박수진 전설기 이소방 씨가, 북은 성덕화 씨가 각각 담당한다. 이외에도 향림사 조실 대원 스님의 선을 주제로 한 발문도 열린다.

행사를 기획한 범주 스님은 "인간성 회복의 최선의 방법은 선사상에 있지만 현대인들이 선수행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것은 물질문명 속에서 욕망이 억제된 복잡한 감정적 상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스님은 "춤, 음악, 그림 등의 동적인 명상을 통해 마음자리를 비우고 풀어지게 한 후 정적인 수행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선을 좀 더 친근하게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한다. (053)421-1115

김주필 기자 jkim@buddhapia.com



범주 스님의 달마도(사진 위)와 대성 스님의 서예작품 '선다일어'.



선(禪)을 주제로 한 대규모 문화예술행사가 열린다.

대구광역시 불족위원회는 4월 4일부터 10일까지 대구 대덕문화전당 공연장 및 대덕아트홀에서 제 1회 선문화예술제를 연다. 행사는 크게 선화(禪畫)와 서예 및 목공예 전시, 전통 불교소리 공연, 선법문 등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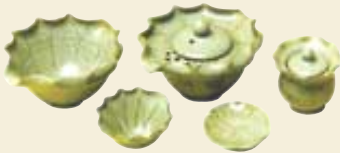
이번 예술제는 선화가인 범주 속리산 달마선원장 스님과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의 '선과 달마도'를 주제로 한

선법문 선화 목공예 전시 등 범주스님, 박찬수씨 퍼포먼스

퍼포먼스로 시작된다. 대형 한지 위에 범주 스님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붓끝이 춤추는 대로 천변만화하며 요동치는 달마도 퍼포먼스를, 박찬수 관장은 목불상을 즉석에서 시연한다.

우선 전시장에 들어가면 범주 스님이 즐겨 그리는 소재인 달마 대사와 포대 화상, 한산과 습득, 관음보살이 눈에 띈다. 달마도는 짙은 눈썹 밑에 동그랗게 도드라져 열린 눈망울이 꼭 다문 입술과 대비를 이루면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밖에 중생들에게 나눠줄 복이 담긴 포대를 들쳐 매고 다녔다는 포대 화상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특 튀어나온 배와 함께 해학을 느끼게 해준다. 또 산속의 추운 동굴에서 살았다는 시인 한산과 절에서 청소하며 살았다는 습득이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있는 모습도 눈 채별짓기를 좋아하는 속세인들에게 통쾌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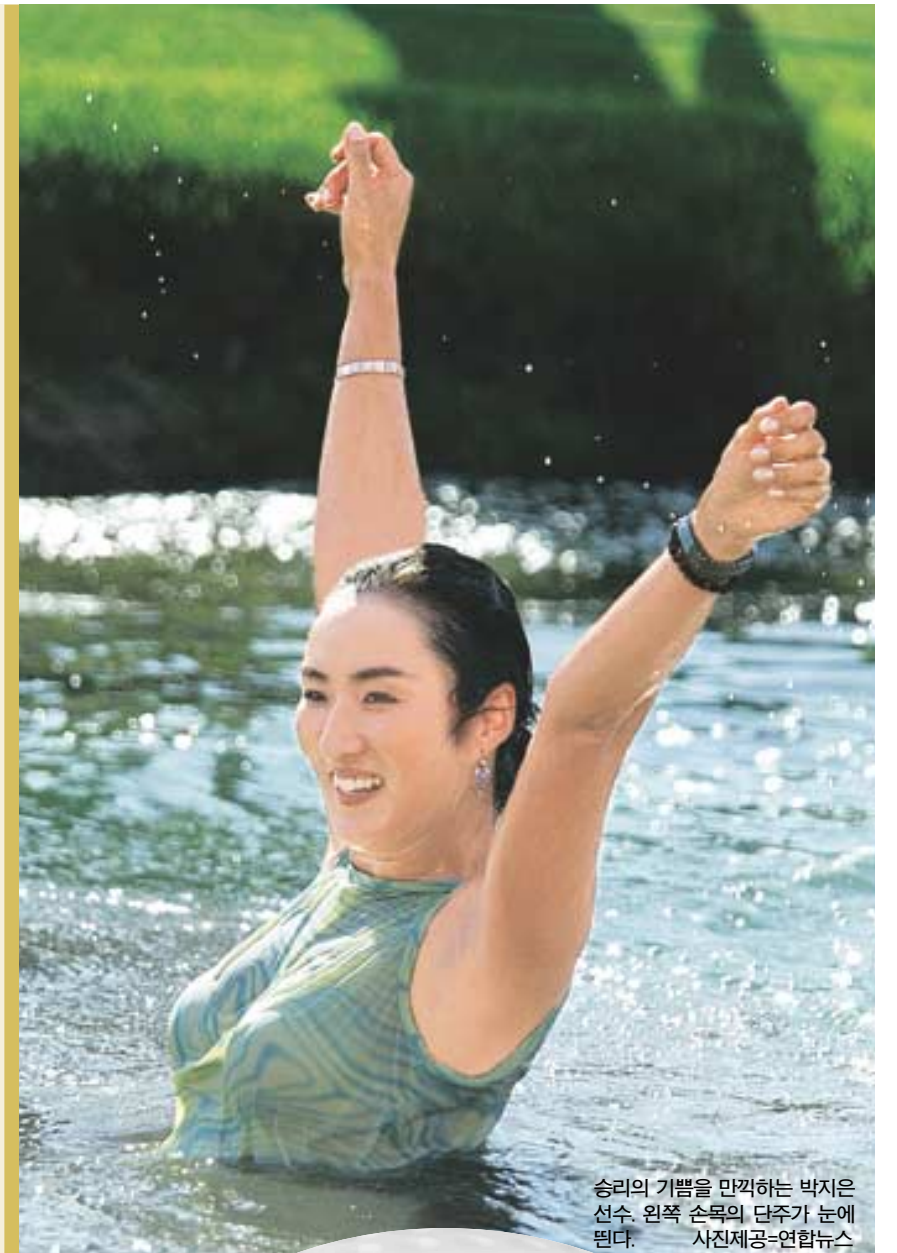
신현철 씨의 도예 작품.

서예, 연꽃도자기 선정신 표현 춤 그림 음악 어우러진 한미당

그 옆에는 대성 스님(범어사 주지 대행)의 서예 작품도 나란히 벽에 걸린다. 스님은 주로 선과 차를 주제로 쓴 '선다(禪茶)'와 '선다일어(禪茶一如)' 등 선관련 경구 20여점을 내놓는다. 박찬수(중요무형문화재 제 108호) 씨의 목조각 불상과 불감, 동자상 등 목공예 작품도 전시된다. 연꽃을 주제로 한 도예작품도 선보인다. 도예가 신현철 씨가 제작한 다완과 향로, 찻잔 등 30여점 등이다. 특히 신현철 씨의 도예작품은 옛 선자들의 정선과 선 문화를 그릇에 담아 단순한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의 동자상.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박지은 선수. 왼쪽 손목에는 단주가 빛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굿샷' 단주는 빛났다

박지은 미 메이저 골프대회 우승 '승부근성 약하다' 불심으로 이겨내

"아우 레디?준비 됐습니까?" 풍림! 3월 29일(한국시간), 미 LPGA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우승자인 박지은 선수(25·나이키골프)는 전 통에 따라 캐디와 함께 18번홀 열 연못으로 뛰어 들었다. 승리의 기쁨과 함께 양팔을 번쩍 치켜든 박 선수의 왼쪽 손목에는 단주가 빛나고 있었다.

항상 손목에 단주를 착용하는 박 선수는 미국 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세리, 강수연 선수 등과 함께 대표적인 불자 골퍼로 잘 알려져 있다.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가 신심 있는 불자다. 특히 아버지 박수남(삼원가든 회장·삼호물산 회장) 씨는 박 선수

에게 처음 골프를 권유했으며 지금도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박 선수의 이번 우승은 여러 가지로 특별하다. 그의 첫 메이저대회 등극인 동시에 박 세리 선수에 이어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 메이저 챔피언으로 탄생하게 됐다. 박 선수는 특히 이번 경기를 위해 '승부근성이 약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고자 골프로스를 떠올리며 꾸준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골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이 박 선수의 최종 목표이자 꿈이다. 훗날 명예의 전당에서도 그의 단주가 아름답게 빛나길 기대해 본다.

한상희 기자

http://kumdeung.com

황금연등

금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황금빛 찬란한 황금연등으로 온 누리를 밝히소서



KD 금등사 대리점 모집 · 구매상담 031) 846-1950, 011-774-1452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몽골, 바이칼호수 8일(몽골 대초원과 러시아 바이칼호수) ▶출발일: 6월 7일

▶일정: 인천-울란바타르-이르쿠츠크-시베리아-바이칼호수-울란바타르-테를지-인천

파키스탄, 실크로드 탐방 18일 ▶출발일: 6월 21일

불상의 탄생지 파키스탄의 간다라유적과 카라코람하이웨이 따라 파미르고원(총령)를 넘어 실크로드-세계최장수 마을 훈자-쿠차 천불동 등 비경을 찾아 탐방하는 일정

▶일정: 인천-라호르-타실라-페사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키슈카르-쿠차-우루무치-돈황-서안-인천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출발 가능

-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하제일 황산-황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황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음동,보제사,낙가산 등-상해) 79만원
-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5일 (성도-낙산대불-아미산-아미산 정상의 금정만년사 등-성도) 85만원
-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6일 (조주선사의 백림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오대산, 운강석굴 등) 95만원

미얀마 성지순례 6일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출발일: 4월 22일 149만원

▶일정: 인천-양곤-비간(2000여개의 불탑-거대한 유적군)-만달레이-양곤(셰다곤대탑,까바에파고다-진신사리천견)-인천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출발일: 4월 22일

▶일정: 콜롬보-아누라다푸라-수령2500년보리수, 고대불교유적-폴론나루와 불교유적-시기리아 고대왕궁-담불리동굴사원-캔디의 불처사(부처님치사리) *밀림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숲의 나라 최고급 호텔,식사 등

티벳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4월 20일, 6월 6일

실크로드의 수많은 경연으로 특색있는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티벳일주 11일(티벳 라사에서 이말라이를 넘어 카투만두까지) ▶일정: 라사-포탈라궁-장체-시기체-라체-사기(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봉)-장무-카투만두

수미산 순례 24일 ▶출발일: 6월 4일, 7월 6일, 9월 3일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